

# 초등학생의 가족여가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이 은 희\* (주립학원 강사) · 김 외 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의 기틀이 되며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는 가족여가활동 참여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초등학생의 가족여가활동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가족여가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함으로써 초등학생의 가족여가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1항목의 가족여가활동에 대한 참여와 일반적 사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08년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서울시 소재 2개 초등학교 2·4·6학년 학생 4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370부의 질문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하여 SPSS 12.0을 이용하여 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Duncan의 다중분류분석(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활동별로 참여빈도를 달리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가족여가활동 참여를 조사한 결과 대화는 하루 1시간 이상, TV시청은 하루 한 시간 정도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야외나들이, 문화생활, 방문·만남·초대, 짬질방, 쇼핑, 외식 중에서는 야외나들이와 짬질방의 참여가 평균 1학기에 1번 이상~1달에 1번 이상으로 특히 높았으며, 산책·운동과 취미생활은 평균 1년에 1번 이상~1달에 1번 이상으로 비슷한 참여수준을 보였다. 가족여행은 1학기에 1번이상하는 경우가 최빈치로 밝혀졌다.

둘째, 가족여가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변수는 성별, 학년, 종교유무, 학업성취도였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족여가에 더 많이 참여하고, 2·4학년이 6학년보다 더 많이 참여하며, 종교가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참여도가 높았고, 중간수준의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학생이 높거나 낮은 수준의 학생보다 참여도가 높았다.

셋째, 가족여가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수는 아버지의 직업과 휴일이었으며, 아버지의 직업은 자영업인 경우가 경영·전문직보다 높았고, 아버지의 휴일이 규칙적인 주말의 경우보다 평일·기타에 속할 경우 가족여가활동 참여가 더 높았다.

연구결과 초등학생의 가족여가활동 참여에는 어머니의 취업여부나 어머니의 휴일 형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비해 아버지의 휴일 형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초등학생의 가족여가활동 참여에 아버지의 직업생활의 영향력이 큰 점을 알 수 있다.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의 기틀이 되며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는 가족여가활동 참여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볼 때 가족여가 활성화를 위한 초등학생 부모의 노력과 함께 지역사회, 직장 및 국가의 다양한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